

민주 '윤 장모 대응문건' 의혹 공세

“가족비리 변호 흥신소 검찰”

“국기문란 사건...진상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대검의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인 권한 남용에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각종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보도를 거론,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변호 활동까지 나선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검찰 권력을 가족 비리 변호 기관으로 활용한 윤석열 사단의 비리는 끝이 안 보인다”며 “대검이 장모의 변호인 역할을 한 셈”이라고 맹공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즉시 한동훈 검사장 등을 입건하고 누가 기소한 것인지 수사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없이 불가능한 장모의 개인 송사를 왜 대검이라는 공권력 기관이 직접 엄호하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했던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이 일고 있다”고 “그리고 정치공작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후안무치”라고 꼬아붙였다. 열린민주당 김성희 대변인도 SNS에서 “검찰총장 가족 보호를 위해 검찰이 흥신소로 전락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추악한 뒷면”이라고 맹공했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고발사주’ 의혹을 국정원의 정치공작으로 몰아간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제보자를 박지원 국정원장의 수양딸이라고 표현하거나 정치 낭인이라고 하는 등 제보자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공수처 해체를 주장하는 등 수사 방해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와 수사기관을 공격하는 행패야말로 국민의힘이 검찰 쿠데타에 공모 내지는 주요 종사자-하수인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이 사건의 본질보다 몰타기하는 모습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설훈 의원은 SNS에서 “가당치 않은 주장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개입 게이트”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은 수사 방해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동을 중단하고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회에서 답변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의힘 신원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전현직 지방의원 207명 이재명 지지선언

“이재명이 대한민국 시대정신”

전남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207명이 14일 “전환적 시대에 지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새로운 방법과 비장한 추진력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재조할 돌파력 지도력을 필요로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개지지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호남은 언제나 시대정신의 중심에서 역사를 진보시켜 왔다”며 “이재명이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는 국민 삶을 불안하게 한다. 불공정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해결은 눈앞의 과제이다. 공정성 회복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적 지도력이 절실하다”며 “한다면 하는 이재명이 전환기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은 인생 자체가 위기였다. 휴스

저, 주변부로 그의 삶은 언제나 위기였지만 기회로 바뀌던 도전의 역사였다. 또한, 개혁을 무력화시키는 불합리한 기득권 해파의 적임자”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계승하는 이재명과 함께 성장과 공정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김종철 전 전남도의회 의장, 조보훈 전 전남부지사, 김대동 전 나주시장, 이영운 전 전남도의원, 우승희 전남도의원, 이재명 열린캠프 전남본부 주철현 상임본부장, 장만재 지역 특보단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장동개발, 모범적 공익사업...마타도어 난무”

이재명, 해당 언론에 “선거 영향 주려 가짜뉴스 뿌려...대선 손떼라”

의혹 제기에도 강력 대응 방침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군 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사업”인 대장동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곡해, 왜곡 보도, 네티즌을 넘어선 마타도어가 난무하다”며 이같이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제기가 이어지며 악재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자 관련 보도를 보수 언론의 ‘마타도어’, ‘가짜뉴스’로 규정,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그는 “당시 민간개발을 허가했으면 더 많은 이익이 개발업체에 귀속되었을 텐데, 이를 비난했

까”라고 말했다. 특히 “대선 후보자인 저에 대한 견강부회식 마타도어 보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며 이번 의혹 보도와 관련,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치개입하지 말라.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일부러 가짜뉴스를 뿌리는 것 아닌가”라며 “명색이 최고 부수를 자랑하는 중앙일간지인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다.

이어 “카더라”를 남발하거나 빈약한 근거로 견강부회식 의혹 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정론직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베 게시판에서 쓴 것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명색이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네티즌 흑색선전을 하고 가짜뉴스를 뿌리면 나라의 미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첨단·그린에너지 선도도시 만들것”

김두관 후보 국회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14일 “광주·전남을 첨단산업·그린에너지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을 선도경제로 도약시킬 산업 전환기에 강력한 균형 분권 정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또 “산업화 시기 독재정권들은 수도권, 대기업, 수출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펼치며 호남에 희생을 강요해왔다”며 “민주주의뿐 아니라 우리 경제도 광주와 전남에 큰 빛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산업 전환기로, 광주·전남 경제가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앞서가는 선도 경제로 만들 절호의 기회”라며 “호남이 산업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균형 분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호남권 메가시티 발전전략을 통해 호남 시도민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를 수도권과 부울경 수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호남을 민주주의의 심장으로서 국가 경제의 심장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광주 군 공항 부지 그린 스마트시티 조성, 에너지 벨트 육성, 초광역 국가 고지자장 연구소 광주 유치, 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 산업 집적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현복 광양시장 “내년 지방선거 출마 않겠다”

3선 도전보다 건강 회복 급선무 부동산 투기·인사 의혹 죄송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아 온 정현복 광양시장은 “고심 끝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14일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광양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3선 도전보다는 먼저 병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며 “3선 도전 여부에 따라 정치적 갈등과 반목이 생기고 광양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시장의 책임자로서 원하지 않는 일이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와 인사 의혹에 대해선 “저와 비롯한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경위가 어떠한 저의 불찰과 부덕의 소치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사법기관에 성실하게 소명하고 혈액암 치료에 전념하면서 광양발전을 위한 진정성과 충심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자신과 부인,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됐고 측근의 자녀가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3월부터 병가를 내고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상가매매 (상무지구)

1) 40평(전용) 2억5천 (용1억)
보1천 월100

2) 60평(전용) 4억5천 (용3억)
보2천 월200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 (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바, 유층,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사비없음)

010-6670-9800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담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